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 (2024년 11-B월호)



은혜의 여정: 하와이 베다니 교회 원홍연 목사의 목회 이야기



원홍연 목사

안녕하세요. 하와이 베다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원홍연 목사입니다. 저는 1998년도에 한국에 있는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입학을 하고, 수업을 듣는데,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미국은 교회들은 많은데, 목사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많은 목사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얼른 졸업해서 미국 가서 연합감리교회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원래부터 미국으로 와서 공부하고 싶었고, 그 말이 저에게 더욱더 자극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 듣고, 1학년 때부터 수업 듣기 전에 새벽에 종로에 있는 영어학원을 다니면서, 유학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감리교 신학대학교 4년, 군대 2년을 마치고, LA에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 20년 전에 들어와 미국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원하고, 바라면 모든 일들이 잘 풀렸습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오기까지 아무 문제도 없었고, 순탄하게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가 목표를 세우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학생 시절 섬겼던 한인교회에서 큰 싸움이 났었습니다. 제가 처음 Charge Conference에서 Declare Candidate 받는 날이 하필이면, 교인들 가운데 가장 격렬하게 싸울 때였습니다. 혹시, Security Guard 고용해서 Charge Conference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감리사님이 교인들이 갑자기 들고 일어나고, 앞으로 달려오니 뒤로 도망가 경찰에 신고하고, 제 눈앞에서 경비원이 삼단봉을 펼치면서 교인들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Charge Conference 해보신 분 계신가요? 그래도, 어렵게 Declare Candidate도 마치고, Charge Conference도 싸우다가 끝이 났습니다. 그때 감리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Pastor Won, Welcome to Ministry” 연합감리교회에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이민 교회 안에서 안수의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가, 제가 상상했고, 생각했던 부분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순간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영주권의 문제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영주권이 없으면 안수 과정을 제대로 이어나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졸업하던 시기에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해 경제위기가 전 세계와 미국을 덮었습니다. 그래도, 졸업하면 섬기고 안수 과정 이어나갈 교회가 있을 거로 생각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냉정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에게 평소에 잘 알던 목사님이 자기 교회 부목사로 오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현재 섬기는 교회를 사임하고, 신약 통독하고 계시면 제가 임원회 통해서 통과시키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에 열심히 신약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에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원 목사님, 너무 미안해요, 제가 임원회에 통과를 못 시켰어요. 좋은 교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저는 섬기던 교회도 사임했고, 신약도 다 읽었는데 말이죠? 저는 한인 교회의 다툼 속에서 목사 안수를 시작했고, 평소 잘 알고, 그래도 기댈 수 있었던 목사님에게까지 큰 상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목사가 부족한 미국만 오면, 목사 안수도 받고, 목사가 필요하니 영주권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내 힘으로 준비했는데, 모든 일이 잘 될 줄 알았었는데,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된다는 저만의 인생 공식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실망이 컸습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저를 아틀란타 한인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영주권을 받고,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그래, 이제 영주권도 있고, 제대로 한번 목사안수 과정에서, 목회 한번 잘 해보자!” 그렇게 드림교회에서 안수 과정을 이어나가며, 교회 개척이라는 새로운 사명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수 과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진전이 없었습니다. dCom에서 매번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인터뷰에 떨어질 때마다 제 마음에는 상처가 하나둘씩 계속해서 늘어났었습니다. 한번은 dCom 인터뷰를 보러 갔는데, 밖에서 저와 함께 기다리던 미국인 Candidate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떨어져서 실망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번이 벌써 7번째 도전이에요. 나는 떨어져도 계속 도전할 거예요.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음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포기하지 말아요.” 저는 그 당시 인터뷰도 떨어졌지만, 그분의 말이 제 마음 한편에 계속해서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바꿔 잡고, 다시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생고생 끝에 안수 인터뷰를 2020년 2월에 통과했습니다.

Provisional interview 통과하고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0년은 어떤 해였죠?코로나로 전 세계가 엄청 고생한 해였습니다. 2월에 안수 인터뷰 통과해서 엄청나게 기뻐하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지만, 바로 그 다음 달 코로나 걸릴까 두렵고, 휴지 없어서 힘들고, 교회 못 가서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코비드 기간 동안 저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래전 밤늦게까지, 혼자 영상 편집할 수 있어서 장례식, 교회 아동부, 여러 영상을 편집했었는데, 그때의 눈물이 코비드 기간 동안 귀한 섬김을 받았고, 또 많은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있던 가운데 하와이로 파송을 받았고, 마침내 올해 6월에 정회원 안수를 받았습니다. 정회원 안수를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회원 안수를 받기 1주일 전, 네 가정이 교단 총회 소식에 반대하여 교회를 공개적으로 나간다고 저와 교인들에게 통보를 해 왔습니다. 본인들만 나가면 되는데, 전화해서 같이 나가자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안수를 큰 환영과 축하 속에서 받게 되었지만, 목회의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했습니다.

안수를 받고, 다시 한번 냉혹한 현실로 돌아와 이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목회를 처음부터 하나둘씩 다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졌는데, 2년 전 우리 교회 건물에 핸드폰 셀 타워를 빌리고 돈을 주기로 했던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침내 모든 퍼밋이 나고, 이제부터 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분들이 나간 빈자리에,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까지 자원해서 참여해 주시고, 모두가 열심히 함께하는 목회로 변화가 되어 갔습니다. 교회가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교인분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홈리스로 돌아갔던 우시 성도님은 가까스로 LA에 사는 남동생을 찾아 연락했고, 그분이 와서 함께 소셜 오피스도 가고, 건강보험도 확인하고, 동생 품으로 돌아가 더 이상 홈리스 생활을 하지 않으셔도 되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라는 긴 여정 가운데, 사실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은혜 앞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새로운 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김영봉 목사님이 쓰셨던 설교자의 일주일 이런 표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Availability is more important than ability” 능력이 뛰어난 것보다 자신을 열고 사람들이 자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목회자의 능력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안수받은 목사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어놓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Surrender 하는 그 은혜가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은혜 앞에 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Surrender 하면, 우리 안에 은혜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가장 소중하고 우리를 이끌어 줄 은혜일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홍연 목사 드림.

트라우마 경험을 통한 목회자 치유 연구



김지훈 목사

저는 Spiritual Care and Counseling을 전공하고 있는 김지훈입니다. 저의 Ph. D 논문 주제는 트라우마를 경험한 목회자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이고 논문 제목은 'Understanding Korean American Pastors' Trauma Experience in Times of Church Conflict: Autoethnographic Inquiry' 입니다.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트라우마를 겪은 환자(목회자)들은 트라우마가 된 사건으로 인해 강한 자책감과 수치심을 느낍니다.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 Therapy)를 통해서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데, 최근 신경과학 연구 결과들은 인지행동치료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바로 인지행동 치료 전에 '감정'을 다루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적 정의에 의하면 '감정'이란 위협적인 상대나 상황을 직면했을 때 느끼는 것인데, 뇌에서 감정을 만드는 곳은 편도체(Amygdala)입니다. 편도체가 두려움이나 위협을 감지하게 되면 그 즉시 공포나 분노 같은 감정을 활성화해서 사람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협적인 대상이나 상황이 사라지면 편도체가 다시 안정화되는데, 심각한 트라우마의 경우에는 편도체가 안정화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환자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 어렵게 됩니다.

심리학자 Patricia Resick에 의하면 편도체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전전두엽(mPFC)과 마치 시소처럼(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전두엽의 활동이 억제되고, 반대로하는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 편도체가 억제됨)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트라우마의 환자의 경우에는 편도체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으므로 전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어 합리적인 사고가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을 다루어 편도체를 안정화(억제)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인지행동치료는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트라우마 환자의 치료에서는 '감정'을 충분히 다루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제가 목회자의 트라우마 치료를 주제로 이 논문을 시작하게 된 것은 현재 담임 목회를 하는 동양선교교회에서 2년 동안 법정 소송 문제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동양선교교회는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이미 10여 년 동안 법정 소송 문제로 심각한 교회 분쟁과 갈등을 겪고 왔고, 제가 담임목사가 된 2017년 이후로도 23개의 소송이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2022년 4월 1일에 모든 법정 소송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나, 저는 이 과정에서 범불안장애증상과 Panic Attack, 그리고 PTSD를 겪었고, 이후 트라우마 증상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었던 여러 방법을 중심으로 트라우마 증상 완화와 상담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저의 트라우마 경험을 바탕으로 Autoethnography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으며 목회자의 감정의 표현을 돕는 방법론으로 시편 활용 방법과 Alane Daugherty의 Hearthmath, 명상 스캔 등의 치료법을 제안합니다. 특히 시편 활용법에서는 트라우마가 언어를 담당하는 좌측 뇌를 경직시키는데, 이때 시편을 활용한 감정표현은 뇌의 오른쪽을 자극해 환자의 감정 해소와 치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제안합니다. 현재 논문은 교회의 오랜 소송 과정에서도 저를 응원해 주시고 돌봐 주신 Samuel Lee 교수님의 지도하에 쓰고 있으며 내년 1월 15일에 두 번째 드래프트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목사 드림.

이혼한 남성들을 위한 한국 교회의 목회적 돌봄: 새로운 포용의 길



이종하 목사

저는 Spiritual Care and Counseling을 전공하고 있는 이종하입니다. 저의 Ph. D 논문 주제는 한국 기독교 맥락에서 이혼한 한국 남성들을 위한 목회적 돌봄입니다. 이는 한국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이혼한 남성들이 경험하는 개인적, 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다루며, 그들이 교회와 사회에서 어떤 지원을 받았고, 어떤 도전과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탐구합니다. 특히, 이는 이혼 후의 목회적 돌봄이 이들에게 어떻게 제공되고 있으며, 교회가 그들을 더 적절하게 돌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구의 주된 목적은 이혼을 경험한 한국 남성들이 한국 교회 내에서 겪는 정서적, 영적 경험을 깊이 이해하고, 이들에게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혼 기독교 남성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 교회의 목회적 돌봄의 현황을 분석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이혼 후 교회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소외되거나 다시 통합되는지를 조사합니다. 이를 통해 교회가 이들에게 적절한 지지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도출하고, 교회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한국 기독교 공동체가 이혼한 남성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회적 돌봄의 방향성을 제안함으로써, 교회가 그들을 다시 신앙 공동체로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 교회가 이혼한 남성들에게 더 깊이 다가가고, 그들의 아픔과 도전을 이해하며, 진정한 목회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국 기독교 공동체가 이들을 신앙 공동체로 다시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하 목사 드림.

이종철 목사, 클레어몬트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 졸업
- 디지털 시대의 목회 돌봄: 노년층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발견 -



이종철 목사

안녕하세요. 이종철 목사입니다. 저는 올해 5월에 클레어몬트 실천신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목회학 박사과정을 시작하면서 학위를 언제 마칠 수 있을까? 또 원하는 때에 마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공부하는 것은 유익하고 즐거웠지만 프로젝트라는 넘어야 할 큰 산이 저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과정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도 걱정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잘 될까? 이런 저런 고민을 하면서 차근차근 프로젝트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프로젝트는 조금씩 완성이 되었고, 지도 교수님과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을 통해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쓰는 과정에서 만나 함께 연구했던 목사님들, 도움을 주신 박사님들, 또 계속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서 고민에 동참해 주셨던 교수님들, 이 모든 분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클레어몬트 실천신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과정의 꽃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상호의존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목회학 박사의 과정은 그저 지식 습득만의 과정이 아니라 지식의 습득과 더불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과 지혜를 배우는 과정임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저는 <포스트-팬데믹 시대에 교회 디지털 미디어 사역을 경험한 기독교 노년층의 현상학적 질적 연구: 다 세대 자서전 그룹을 중심으로>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완성하였습니다. 잠시 저의 연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19이후 교회의 사역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역들이 참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속하여 있던 교회에도 이러한 변화는 불가피 하였습니다. 저의 프로젝트는 이러한 변화안에서 노년세대는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질적연구를 통해서 현상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입니다. 저는 Y교회의 노년세대들이 디지털 미디어 사역을 통해 겪었던 경험을 네 가지 범주로 도출하였고 이 결과를 에이지즘과, 상호의존의 관점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회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미디어 사역에서 노인들이 겪고 있는 상실감, 소외, 신앙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그들의 참여의지를 도울 수 있는 목회 방향과 실천적인 목회 돌봄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노년 세대의 마음과 상황,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노년을 향한 마음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목회 돌봄의 대안이었던 <영성형성을 위한 세대 간 자서전 그룹>을 진행하며 다른 두 세대가 함께 상호의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각자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온 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가 영성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지금의 상황에서 서로에게 최선의 결과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클레어몬트 실천신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과정은 기존의 것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출발 점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 함께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종철 목사 드림.